

No part of this product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electronic or mechanical means, including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IB.

Additionally, the license tied with this product prohibits commercial use of any selected files or extracts from this product. Use by third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ublishers, private teachers, tutoring or study services, preparatory schools, vendors operating curriculum mapping services or teacher resource digital platforms and app developers, is not permitted and is subject to the IB's prior written consent via a license. More information on how to request a license can be obtained from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Aucune partie de ce produit ne peut être reproduite sous quelque forme ni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électronique ou mécanique, y compris des systèmes de stockage et de récupération d'informations, sans l'autorisation écrite de l'IB.

De plus, la licence associée à ce produit interdit toute utilisation commerciale de tout fichier ou extrait sélectionné dans ce produit. L'utilisation par des tiers, y compris, sans toutefois s'y limiter, des éditeurs, des professeurs particuliers, des services de tutorat ou d'aide aux études, des établissements de préparation à l'enseignement supérieur, des fournisseurs de services de planification des programmes d'études, des gestionnaires de plateformes pédagogiques en ligne, et des développeurs d'applications, n'est pas autorisée et est soumise au consentement écrit préalable de l'IB par l'intermédiaire d'une licence. Pour plus d'informations sur la procédure à suivre pour demander une licence, rendez-vous à l'adresse suivante :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No se podrá reproducir ninguna parte de este producto de ninguna forma ni por ningún medio electrónico o mecánico, incluidos los sistemas de almacenamiento y recuperación de información, sin que medie la autorización escrita del IB.

Además, la licencia vinculada a este producto prohíbe el uso con fines comerciales de todo archivo o fragmento seleccionado de este producto. El uso por parte de terceros —lo que incluye, a título enunciativo, editoriales, profesores particulares, servicios de apoyo académico o ayuda para el estudio, colegios preparatorios, desarrolladores de aplicaciones y entidades que presten servicios de planificación curricular u ofrezcan recursos para docentes mediante plataformas digitales— no está permitido y estará sujeto al otorgamiento previo de una licencia escrita por parte del IB. En este enlace encontrará más información sobre cómo solicitar una licencia: <https://ibo.org/become-an-ib-school/ib-publishing/licensing/applying-for-a-license/>.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2 November 2020 (afternoon)

Lundi 2 novembre 2020 (après-midi)

Lunes 2 de noviembre de 2020 (tarde)

2 h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코끼리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일곱 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에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5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었나간 망치가 아버지 손톱을 찼었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10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중략)

아기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은 퍼체우라가 흔들릴 때마다 놀란 듯 부르르 쩐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좋겠다.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춤바를 입고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꾸다. 노란 유채꽃 언덕 너머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낮은 황토 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꿈에서

15 아버지는 가녀린 통게꽃과 붉은 비저꽃이 흐드러진 고향집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 달과 바트, 더르가리(야채 반찬), 물소 고기에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실컷 먹는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다 거기 두고 왔단

20 말이야. 제발……!”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은 없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25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살아 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깜빡 잠들었던 걸까. 눈을 뜨니 방 안이 어둑어둑하다. 눈을 비비고 밖으로 나간다. 오늘도 비재 아저씨는 감나무 밑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술이라면 한 잔도 못 마시는 아저씨 얼굴이 이상스레 붉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돗가는 사람들로 번잡하다.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깎는 미안마 아저씨 투라의 발등 위로 누군가 쌀뜨물을

30 하얗게 흘려보내고, 요란하게 똑딱거리는 도마 위에선 양파와 피망과 호박이 다져진다. 꼬챙이에 꿰인 양고기가 팬 위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노린내를 풍긴다. 발목에서 찰랑대던 어둠이 머리끝까지 차오르자, 감나무 가지에 걸린 백열등도 노랗게 빛을 발한다.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양동이에 덥힌 물을 세숫대야에 부어 금발의 긴 머리를 행구고, 어린 토야는 저녁 짓는 엄마 등에 업혀 오랜만에 방긋방긋 웃는다.

35 온갖 나라 말과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마당은 벌, 나비가 웅웅대는 야생화 꽃밭처럼 향기롭고 소란하다.

40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다. 생일날까지도 야근을 하나보다. 음식을 준비해야겠다. 고향을 느낄 만한 걸로. 그러면 아버지 맘도 누그러지겠지. 선반을 뒤져 양파와 감자, 지나콩 한 줌을 찾아낸다. 우선 지나콩을 물에 담가 불리고 감자와 양파 껍질을 벗겨 잘게 자른다. 네팔 버터 기우에 잘게 자른 재료를 넣고 살짝 볶은 다음 잠시 생각하다가 거름메살라(여러 가지 양념을 말려 가루로 낸 것) 가루가 든 봉지를 꺼낸다. 봉지가 훌쩍하게 구겨져 있다. 거꾸로 들어 흔들어보니 바닥에만 남았던 가루가 조금 날린다. 지라와 랑, 썩멜, 고추, 더니아 따위가 들어간 그 양념이 없으면 더르가리 맛을 제대로 낼 수 없다. 손가락을 냄비에 푹 콧고 가스불을 꺼버린다.

김재영

* 퍼체우라: 네팔 남자들이 몸에 걸치는 직사각형의 천

2.

별을 굽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5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10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쬐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15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여 있나 보다

20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김혜순

Disclaimer:

Texts used in IB language assessments are taken from authentic, third-party sources. The views expressed within them belong to their individual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B.

References:

1.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2. 김혜순, 2008. “별을 굽다” in *당신 의 첫*. 서울: 문학과 지성사.